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대상 3선교구

제24회 선교구성가제, 예수님 오심을 찬송해

14개 선교구 2,000여 명 성도들이 참여한 풍요로운 축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12월 1일 첫 주일에 광림교회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제24회 선교구성가제가 열렸다.

저녁예배는 김현우 목사(5선교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시 134:1~3)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밤에 찬양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성소를 향하고 손을 들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며 성가제의 문을 열었다.

올해는 본당 10개 선교구와 남교회 2개 선교구, 북교회, 작년 우승팀인 동탄광림교회까지 총 14개의 선교구가 참가했고, 지난해보다 많은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심사는 총 배점 100점 중 음악성 50점, 참여도 40점, 질서 10점으로 배분했는데, 특별히 올해는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성가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여도가 많은 선교구에 점수를 더 부여했다. 참여도란 연

습에 참여한 인원수, 연습 과정과 분위기 등을 반영한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여느 해보다 연습 현장의 분위기도 치열했다. 또한 음악으로 평가하는 성가제이기 때문에 외부 전공자 참여는 감점이 있고, 악보를 외워서 찬양하면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기준도 세웠다.

각 선교구에서는 한달 이상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 연습을 하며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 날 이세원 권사의 사회로 시작된 선교구찬양제는 선의의 경쟁뿐 아니라 목회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영상으로 모두를 즐겁게 했다.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14개 선교구의 찬양이 끝나고, 매년 이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광림교회 부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찬양으로 특송 무대를 꾸몄고, 뒤를 이어 갈릴리성가대 솔리스트 소프라노 허진아가 벨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를 불러 열기를 더했다.

장대진 장로(음악위원회 위원장)가 성가제 심사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시상식에 앞서 이번 성가제를 위해 후원과 기도를 해주신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남선교회·여선교회·실업인선교회, 심사를 맡아준 성가대 지휘자, 선교구 연합회장, 행사를 주관하는 음악위원회 임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14개 선교구 모두가 대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과시했지만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따라 결과가 발표됐다.

소망상 5선교구·4선교구·광림남교회 1선교구, 장려상 광림북교회·2선교구·동탄교회, 격려상 10선교구·남2선교구·6선교구, 인기상은 최다 인원을 동원하고 참여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보여준 7선교구, 동상 9선교구, 은상 8선교구, 금상은 1선교구가 차지했다. 대상은 오랫동안 대상을 간절히 소망했던 3선교구가 받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감독회장은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제 마음속에 은혜와 큰 기쁨이 됐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얼마나 흡족해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을 드리는 선교구성가제에 참여하신 분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교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권면과 치하의 말씀을 전했다.



한혜선 기자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계시의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이 신께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말씀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경전을 접하지 않고도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 곧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계시자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계시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특징적 요소를 한 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14절).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로운 생명운동의 시작입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 기사는 ‘인간’ 또는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육신’이라는 단어, 즉 ‘Body’가 아니라 ‘Fles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로써 ‘육신’은 전인적인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전인적인 모습, 곧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제한받기를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죽은 생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4~18
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울렷음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도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견해지만, 병을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 관한 기사가 대략 27번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원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 보아도 아무런 기망이 없는 사람들, 즉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 곧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의 모습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치유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능력의 역사, 즉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둘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고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공간적 의미, 내용적 의미, 시간적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 표현하지만, 영어의 표현을 보면 “Instead of”로 무엇을 대신하다입니다.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 곧 절대적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은혜, 은혜 아닌 것을 물리치는 은혜, 은혜의 최종 승리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가 되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은혜, 즉 은혜 위에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심령, 여기에 소망이 넘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곧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과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넘치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셋째, 흑암에서 참 빛을 주시기 위해 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이다”(요 14:6)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된 자유함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다른 사람은 경제적 자유함이 있으면 자유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보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의 노예에서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구해 주시어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년마다 오는 성탄의 절기에 다시금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서 자유함과 죄의 어둠을 이겨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선도 감독님 2주기 추모예배

11월 25일(월) 오전 11시, 광림수도원 대예배실에서 열려



김선도 감독님 2주기 추모예배가 11월 25일(월)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 대성전에서 드려졌다.

박동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예배에서 박영노 장로의 대표 기도와 김도옥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갈릴리중창단이 평소 감독님이 즐겨 부르셨던 '어찌 날 위함아온지'를 찬양했다.

이기복 감독(남부연회 16대 감독)은 '하늘의 별이 되신故 김선도 감독님(단 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선도 감독님은 목회자이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어른이었다. 한국 교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인 목회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였다. 또한 감독님은 인간을 살리는 의사이자 목회자였고, 전인적인 치유목회와 상담목회를 실현하셨다. 설교를 통해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회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도전과 응전의 지혜를 갖게 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셨다"

이 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회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도전과 응전의 지혜를 갖게 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셨다"

이어故 김선도 감독님의 추모 영상과 안중원 장로의 추모사, 장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최우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48년 전 감리교 신학대학 재학 중에 임상목회학을 강의하셨던 감독님을 처음 뵈었다. 크지 않은 키에 당당한 체격, 짙은 눈썹에 확

신에 찬 강의는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후 광림교회 부목사로 합류하게 하였고, 1987년에 안산광림교회 개척 담임목사로 파송해 주셨다. 저를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신 영원한 스승이시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정석 감독회장이 가족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목회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목회 본질에 충실하셨던 아버지의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이었고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담겨 있는 전인적 구원이었다. 또한 말씀과 기도가 삶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성화로 이어지는 존 웨슬리의 사회적 복음에 관심이 많으셨다. 한 영혼을 구원해 성화로 나아가도록 돕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고인의 소망이었으며 광림교회가 펼쳐가는 목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안경섭 장로의 예사와 광고, 이기복 감독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감독님 묘소를 찾아가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성서주일, 나의 사랑하는 책
12월 8일 성서주일에 성경봉독은 초등2부 난지현 학생이, 성서 수여는 초등1부 오아론 학생이 받는다.



사랑나무 소식지
사랑나무는 2024년 36호 사랑나무 소식지를 발간했다.



2025년 감리교회 속회공과
상반기 속회공과는 교구 전도사와 빛의 숲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감독회장 동정



- 11/25 故김선도 감독님 2주기 추모예배
- 11/26-28 교역자 퇴수회
- 11/29 교회학교전국연합회 개회예배
- 12/1 성탄 트리 점등식
선교구성가제
- 12/2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
- 12/2~4 기독교감리회 필리핀 선교
50주년 회년대회
- 12/5~7 목회세미나
- 12/7 경조총회
- 12/8 성서주일
사랑의살 전달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2024년 하반기 목회세미나



2024년 한 해의 목회를 돌아보고, 2025년 목회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하반기 목회세미나>가 지난 12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2박 3일간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목회세미나에는 광림교회 본당 10개 선교구와 3개 지교회, 교회 내 기관과 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목회하는 90여명의 목회자가 모두 모여 2024년 목회를 점검하고, 하반기

목회 계획을 나누었다.

이번 목회세미나를 주재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 해의 목회를 결산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목회세미나를 통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엡 6:19~20)라는 비전을 달성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2025년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미리 보는 광림교회 2025년 캘린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차게 달려왔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 새삼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짐은 한 해 동안 성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이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체감하듯 1월~12월까지 임원전지훈련, 트리니티, 총력전도, 호렙산기도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선교구성가제 등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한 해가 금방 지나간다고 고백한다. 광림교회는 해마다 연말에 새해 탁상 캘린더를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캘린더는 단순히 날짜를 표시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일정을 기록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준다. 또한,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하며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의 선물이다. 2025년 캘린더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연과 공간을 주제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표현한 정유빈 작가의 12점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정유빈 작가는 목원대학

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개인전 2021 '낮의 형태', '사소한 유영', 단재전 2024 '그래도 우리는 회전한다' 등 많은 전시회를 열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정 작가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창문 프레임 너머의 풍경은 건축물과 자연물이 서로 뒤엉켜 현실과 다른 차원의 세계로 느껴졌고, 이를 토대로 실재와 가상을 넘나들며 새로운 공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작품 속의 끈은 선으로 이루어진 건축물과 유영하는 듯한 자연물의 굵은 선들은 무한한 공간으로 연결되며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반영한다.

2025년 광림교회 캘린더를 볼 때 작품이 말해주듯 우리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주변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광림의 성도들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한 해로 나아가길 기도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여선교회총연합회 송년예배

12월 10일(화), 오전 10시 본당 대예배실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12월 10일(화) 오전 10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제36회 여선교회 송년예배를 드린다.

마리아, 에스더, 루디아 총 455개체 선교회장 과 회원을 초청하여 한 해 동안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예배는 총 2부 순서로 나뉘며 1부는 예배와 성찬식, 시상식과 경품 추첨, 2부는 찬양 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예배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말씀 후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 분급 이후 여선교회 회장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여선교회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선교회는

매월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를 갖는데, 12번의 월례회에 모두 참석한 136명에 대해 개근상, 11번의 월례회에 참석한 59명의 회원에게는 정근상, 우수 선교회에는 우수상을 수여한다. 감독회장의 축도 후 예배가 종료되며 경품 추첨이 이어진다. 예배에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경품 추첨권이 배부되는데 목사님들이 추첨할 예정이며, 다양하고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이화열 권사는 "여선교회는 차세대 신앙 계승과 시니어들의 중단 없는 선교 사명을 동시에 추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선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육국과 남선교회 등 타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회원

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해 교회와 이웃, 가정을 위해 쓰임 받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도 꾸준히 이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질 2부에서는 2024년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에 참가해 광림교회와 한국감리교단,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광림콰이어와 국악, 오보에 공연이 펼쳐진다. 예배 후에는 애찬관에서 여선교회가 준비한 애찬을 나눌 예정이다.

박희윤 기자

광림 사이닝키즈 2025년 신입생 및 원아 모집



광림 사이닝키즈는 5세부터 7세 아이들을 위한 광림교회 병설 유치교육기관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인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예배와 다양한 콘텐츠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어린이, 예수님이 주인 된 어린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돕고

있다. 광림 사이닝키즈는 국가 인증 교사진의 유치원 누리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좋은나무 성품교육'을 통해 경청, 인내, 긍정적인 태도, 감사, 배려 등 12가지 성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아이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표현하고 자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식 영어학원으로 등록된 유치원 교육기관으로 영어를 생활화하여, 매일 오전 영어 수업이 진행된다. 영어특화 수업으로 영어 노래 배우기, 영어 대화하기, 영어 게임, 영어 주기도문 외우기 등이 진행된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악기, 태권도, 미술, 도예, 발레, 체육, 놀이 수학 등 다양한 수업

을 통해 스스로 달란트를 발견하고 자기개발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2025년부터 광림교회 근처인 옥수동, 압구정동, 잠원동, 신사동에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운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문의 : 광림 사이닝키즈(02-2015-1101)
권정숙 원장(010-3748-7853)

이정순 기자

청년부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 모금 행사 진행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슈박스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모금 행사부터 패키징과 전달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김세열 전도사(청년부)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이 성탄을 맞아 12월 1일부터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취약 계층 아동 1,500명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모금 행사는 광림교회 밀레니엄 공원과 구름다리에서 진행되며, 목표액은 4,500만 원이다.

매년 성탄절 시즌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올해 역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슈박스를 통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대상은?

슈박스는 국내외 다양한 곳으로 향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해외 9개국 11개 선교센터의 아동 700명, 소아암 및 희귀질환으로 어려움

을 겪는 아동 200명, 전국 13개 지방 미자립 교회의 아동 400명, 그리고 강남 지역의 취약 계층 아동 200명이 포함된다.

선물은 강남복지재단과 한국소아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달되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따뜻하게 스며들 예정이다.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슈박스 모금은 12월 1일부터 매주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성원제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영호 청년도 "성탄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

새기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는 의미를 밝혔다.

패키징데이와 전달식, 사랑의 순간을 함께하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사랑의 슈박스 패키징데이'가 열린다. 청년들은 각 박스에 정성과 기도를 담으며 아동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손수 포장한다. 약 1,000개의 슈박스가 준비될 예정이며, 이 시간은 캠페인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어 12월 22일 오후 4시, 광림교회 본당 로비에서는 '사랑의 슈박스 전달식'이 열린다. 청년들이 직접 포장한 슈박스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아동들에게 전한다.

사랑의 슈박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년부

아기 예수의 구원의 빛, 세상을 밝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트리 가 밀레니엄 공원 앞에 환하게 불을 밝혔다.

광림교회는 대림절 첫째 주일인 12월 1일, 청년선교국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 "5,4,3,2,1, 점등!" 힘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성탄트리에 불이 들어왔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라는 성경 말씀처럼 형형색색 꾸며진 성탄트리는 오가는 많은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될 것이며 1월 10일까지 지속된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 될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트리 제작을 담당할 청년부 성은정 성도는 "성탄트리 맨 위에는 큰 별이 꾸며져 있어요.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장식하는 성탄트리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산길을 걷던 마틴 루터는 천나무에 쌓였던 눈들이 달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어두웠던 주위를 밝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루터는 천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 눈 모양의 솜과 리본 등의 장식을 달아 달빛에 반사되는 눈빛을 대신하여 트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성탄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포토존이 본당 1층 로비와 교회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예배당 성탄트리 장식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미경 권사(11교구) 가정에서 헌신했다.

청년선교국은 성탄트리 점등식에 맞춰 12월 한 달 동안 슈박스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금된 후원금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 계층 1,500명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병권 기자

목회현장

남태평양 선교 사명 감당하는 뉴질랜드광림교회



있고, 한인사회 속에 장소를 개방하면서 사회적 성화의 실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광림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인 남태평양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지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피지는 과거 한국에서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았던 곳으로 휴양지로서의 인식이 강하지만, 뉴질랜드광림교회의 시선에서 볼 때는 많은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뉴질랜드광림교회는 남태평양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난 1995년 4월 23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에는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뉴질랜드광림교회는 뉴질랜드를 찾은 이민자와 유학생을 위한 예배의 터전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 왔습니다. 더불어 타국에서의 영적인, 마음적인, 삶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의 장소가 되

피지는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심지와 바닷가와 산지입니다. 이 중에서 도심지는 물론이거니와 바닷가까지는 휴양지로서, 어느 정도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는 비포장도로 산길을 4륜 구동 차량으로 2~3시간을 달려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기에, 문화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 아직도 많이 낙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광림교회는 한국교회 및 선교 단체를 통틀어서, 이 산지 속에 들어가 숙식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벌인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처음 방문할 때에는 산에 구덩이를 파고 천막을 쳐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뉴질랜드광림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나꼬르 마을과 나몰리 마을, 그리고 남부타 마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선교팀을 구성하여 들어가서 교회 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 성경학교 진행 등의 선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축한 나몰리 마을교회는 4륜 구동 자동차로 3시간을 들어가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난 2023년 선교차 방문하였을 때에, 수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강을 건너와서 선교팀을 반겨주었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사의 찬양과도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뉴질랜드광림교회에서 건축한 나몰리마을교회가 주일에는 교회로 사용되고, 평일에는 그 마을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약 15년 전 쯤에는 광림교회 본당 의료선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의료선교를 하였고, 그때 함께 참여하였던 뉴질랜드광림교회 고등학생은 의료선교의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하여, 지금은 의사인 동시에 광림교회 본당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일만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비행기로 12시간이 걸리고, 남반부에 위치해서 계절은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광림교회 본당의 선교적인 사명을 멀리서 함께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광림교회와 남태평양 지역을 향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광림교회에서 피지에 세 번째로 건

정명환 목사(뉴질랜드광림교회)

광림남교회

거룩한 삶을 위한 '토브 제자훈련'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 119:9)

광림남교회 청년부에서는 10월 5일(토)부터 11월 30일(토)까지 9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광림교회의 4STEP 교재의 내용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원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거듭난 신자가 짓는 죄', '성화' 등에 대해 나누며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토요일에 모여 성령 임재의 찬양을 하고, 삶을 나눔으로써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혹은 은혜받았던 말씀과 중보기도제목을 나누며, 주차별로 정해진 내용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제자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인원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독후감과 매주 있었던

숙제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오셔서 더욱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11월 23일(토)을 특별한 순례의 날로 정하여 제자훈련팀이 광림수도원의 기도동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기도동산을 오르기 전, 광림수도원을 섬기고 계신 신성섭 장로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故김선도 감독님의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기도동산을 오르고, 헤리티지홀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했던 탁영인 청년은 "제자훈련 기간이 짧고 아쉽게 느껴질 만큼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으며, 제자훈련을 인도한 선영진 목사는 "제자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밑일이 되어 광림남교회 청년부가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현진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다



광림북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저녁예배를 찬양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찬양예배는 에스더선교회, 바울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조직된 '에바다찬양단'이 처음 찬양 인도를 하는 뜻깊은 예배였습니다. 에바다찬양단은 찬송가를 중심으로 찬양과 간증을 엮어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이어지는 순서는 지난 일 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과 부서에서 준비한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는 영유아와 유치부 아이들의 귀여운 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에 감동과 기쁨을 더했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예배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며,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이어 성용석, 최정자 권사 부부는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으셨다가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담은 '감사'라는 찬양을 나눴고, 에스더3 여성교회가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십자가의 향기'라는 찬양을 울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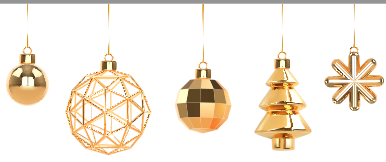
함께 고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길 응원해주는 듯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이천일 성도는 색소폰 연주로 특송을 선보였습니다. 색소폰 연주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영감으로 고백되길 원한다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문, 이원길 권사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베드로의 고백'과 '에바다'를 찬양했습니다. 마치 CCM 듀오 '다윗과 요나단'을 연상시키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두분의 찬양은 은혜와 감동을 더해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웨슬레선교회 부부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찬양예배는 찬양과 간증이 어우러져, 의무적인 순서로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유롭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우진 목사(광림북교회)



2024년 제24회 선교구성가제



1선교구 금상



8선교구 은상



9선교구 동상



7선교구 인기상



10선교구 격려상



광림남교회 2선교구 격려상



6선교구 격려상



광림북교회 장려상



2선교구 장려상



동탄광림교회 장려상



5선교구 소망상



4선교구 소망상



광림남교회 1선교구 소망상



부목사 특별 찬양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 4:1)

분노한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냈다.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히브리어로 '삶'을 뜻함, 이브(Eve)라는 영어식 발음)라고 불렀다. 이는 여자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거친 세상 밖으로 나가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했다.

이후 아담은 하와와 잠자리를 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형은 가인(Cain)이었고, 동생은 아벨(Abel)이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서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가인은 들에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아버지의 양 떼를 몰았다. 물론 그들은 여느 형제들처럼 다투기도 했다.

하루는 그들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거친 돌 제단에 올렸다. 그런데 아벨의 제단에 있는 장작은 불이 잘 타올랐지만, 가인은 불을 붙이려고 부싯돌을 켜느라 애를 먹었다.

가인은 아벨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벨은 옆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가인은 그에게 사라지라고 말했지만, 아벨은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마구 때려죽이고 말았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도망쳤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뉘들 사이에 숨은 그를 찾아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에 가인은 둘러댔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낸 것처럼 가인도 쫓아냈다. 이후 가인은 에덴동산의 동쪽 늦 땅에 거주하며 에녹을 낳고 살아가다. 비록 가인은 오래 살았지만, 부모들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 6:13)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담은 다시 하와와 잠자리를 가져 아들 셋(Seth)을 낳았다. 셋을 낳은 후에도 아담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점차 늘어나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의 산악 지대와 남쪽 사막지대에서 정착하였다.

그러나 가인의 범죄는 초기의 인류인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가인은 살인자일 뿐 아니라 거짓말쟁이였다. 가인은 거대한 성(城)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Enoch)이라고 불렀다. 성을 쌓은 가인처럼 이제 인간은 서로를 두려워하며 대적하였다. 이웃을 시기하여 죽이거나 상대의 물건들을 훔치기도 했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힘이 약한 처녀들은 인근 마을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밖에 없었다. 세상은 비참하고 참혹해져만 갔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 노아의 방주 건조_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다.야코포 바사노 작품

였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더욱 타락해져 갔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때 노아(Noah)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던 므두셀라의 손자였고, 가인과 아벨 이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선한 사람으로 당대의 의인이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면, 노아는 훌륭한 조상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할 생각을 하고 노아를 불러 말했다.

“인간들의 죄악이 이 땅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큰 배(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가 137미터에 너비가 23미터, 깊이가 13.5미터가 되는 배를 만들라고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잣나무 목재만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대형 유조선 크기인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노아와 가족들은 깨끗하게 배를 만들었지만, 그의 이웃들은 이들을 지켜보며 비웃었다. 1,000마일 이내에 강이나 바다가 없는 곳에서 배를 만든다니 우스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믿음직한 가족들은 배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배의 세 번째 갑판이 완성되고 지붕이 올려졌다. 지붕은 대홍수 심판의 맹렬한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목재로 만들어졌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셋,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모두 여덟 명은 방주(方舟)에

▲ 아벨의 죽음_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다. 친형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죽음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틴토레토 작품



▲ 노아의 방주_ 완성된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의 모습으로,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 부정함 짐승 암수 둘씩, 새 암수 일곱씩 방주에 들어갔다.

야코포 바사노 작품

탈 준비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식량을 마련하고, 홍수가 끝난 후 마른 땅으로 돌아갔을 때 놓아줄 모든 동물 암수한 쌍씩을 모아들였다. 일주일 내내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거두어들였다. 물고기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제외했다.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